

# 가전업계, 전기요금 걱정 된다... 초절전 가전·솔루션 선봬

IoT 기반 에너지 절감효과 극대화  
**삼성**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 서비스  
**LG** '씽큐' 사용자 최적화 솔루션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에너지 절감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가전제품이 전력 소모 절감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재무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르면 오는 4분기에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면서 "폭염이 지나고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역대급 폭염이 9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요금 부담



삼성전자 모델들이 다양한 AI 가전을 소개하고 있다.

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작년 동기(82.7GW)보다 6.1% 증가한 87.8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대 전력수요란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의미한다.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 업체들도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가전 통합관리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통해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SmartThings HomeLif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는 집 안 기기를 스마트싱스에 연동해 가전제품의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령, 여름철 전력 소모가 많은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 최적화된 전력 소비 방식을 제안하고, 자



LG전자 구독 가전 이미지

동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 'AI절약 모드'를 사용해 설정한 목표 사용량까지 도달하기 전에 절전모드로 자동 전환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정부기관과도 협업해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인식을 제고하고 탄소 배출 저감 실천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력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의 자동 수요반응(Auto Demand Response) 기능을 활용해 국민들이 탄소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천 캠페인을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LG전자 역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LG전지도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LG ThinQ)를 통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에너지 절약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LG씽큐는 사용자의 가전제품 사용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절전 모드를 작동시키는 등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한다. 또 가전제품의 전력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을 알려주는 '가전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용자가 월간 전력 목표 사용량을 설정하면 실시간으로 누적 사용량 확인할 수 있고, 월말 예상 사용량도 예측해 준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한화오션, 美 해군 군수지원함 정비

월리 쉬라호 거제사업장 입항  
 "K-방산 명성 이어 나갈 것"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한미 양국의 방산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한화오션은 2일 MRO사업을 위해 주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이 함정 정비를 위해 거제사업장에 입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입항 행사는 극동 미해군해상수송사령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거제시 등 양국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입항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호는 해상에서 탄약, 식량, 수리부품, 연료 등을 다른 함정에 보급하는 군수지원함이다. 배수량 4만톤급으로 전장 210m, 전폭 32.2m에 이른다.

월리 쉬라호는 거제사업장에서 약 3개월간 함정 정비 작업을 거친 뒤 미해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월리 쉬라'호가 함정 정비를 위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입항하고 있다.

군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미국은 최근 운용 중인 해군 전력의 유지보수에 대한 거리상 어려움과 비용 문제 등으로 우방국에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함정 기술력과 정비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MSRA(함정

정비협약)을 획득하고 이번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수주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 함정의 MRO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기 인도해 K-방산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삼성전자, 유럽 생활가전 시장 공략 박차

IFA서 유럽형 '비스포크 AI' 콤보 공개

삼성전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유럽 맞춤형 올인원 세탁건조기를 공개하고 현지 시장을 공략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6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 'IFA A 2024'에서 유럽 맞춤형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를 선보이며 현지 공략에 본격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유럽형 비스포크 AI 콤보를 출시해 공간과 에너지 절감에 특히 민감한 유럽 소비자를 공략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세탁 용량 18kg, 건조 용량 11kg으로 출시된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물을 옮기지 않고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가능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보다 상부 수납공간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다. 유럽은 가옥 구조가 좁아 가전의 공간 활용이 구매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또 비스포크 AI 콤보는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 기술이 적용돼 세탁과 건조 작동 부분에서 유럽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세탁 작동에서는 유럽 에너지 소비효율 A등급 대비 20% 더 절감해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췄다.

'AI 맞춤 코스'로 불필요한 물과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스마트싱스 앱에서 'AI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세탁 시 최대 60%, 건조 시 최대 30% 에너지를 추가 절감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11월부터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기아, 중형표준차 '캡샤시' 유럽 최초 공개

폴란드 방산전시회 2년 연속 참가

기아가 유럽 방산 시장 공략을 위해 폴란드 방산전시회에서 자사 기술력을 선보인다.

기아는 3일부터 6일까지(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 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MSPO 2024(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32회째를 맞이한 MSPO 방산전시회는 동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로, 지난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기아는 작년부터 참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기아는 '중형표준차(KMTV, Kia Medium Tactical

Vehicle) 캡샤시'를 유럽 최초로 공개한다.

기아의 중형표준차는 기준 2½톤, 5톤 군용 표준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차량으로, 전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편의사양이 적용되어 병력과 물자를 보다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m 깊이의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도섭 능력 ▲60% 종경사(전진, 후진을 통해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것) 및 40% 횡경사(옆으로 기울인 채 주행하는 것) 등판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 험난한 주행 환경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한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MSPO 2024에



3일부터 폴란드 키엘체 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MSPO 2024' 기아관에 전시된 소형전술차 베이샤시(왼쪽), 중형표준차 캡샤시 /기아

서 중형표준차 캡샤시, 소형전술차 베이샤시 등 군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이동을 돕는 다양한 특수차량들을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여러 혁신 기술을 적용한 특수차량들을 개발함으로써 군용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가온전선, 지앤피 인수... 품질 경쟁력 강화

지분 100% 현물출자 전량 인수

가온전선이 배전 케이블 및 전선 소재 전문기업인 지앤피(G&P)를 인수하여, 수직계열화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

가온전선은 LS전선을 대상으로 한 '제3차 배정 유상증자 및 지앤피 주식양수' 안건을 결의하고, LS전선의 지앤피 지분 100%를 현물출자로 전량 인수한다고 3일 밝혔다.

가온전선은 LS전선의 자회사로, 2023년 매출 1조 4986억원을 기록한 국내 3위의 종합전선회사다. 지앤피는 배전(MV, LV) 케이블, 자동차 및 선박용 전선, 그리고 전선 제조에 필요한 컴파운드 등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가온전선은 전선용 소재에서부터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는 수직계열화를 달성하게 됐다. 이를 통해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생산 과정을 통합 관리하여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앤피의 선박용 전선과 산업용 특수선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하여 다양한 산업군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현 가온전선 대표는 "지앤피의 컴파운드 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국내 배전 케이블 시장에서 1위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미국 시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